<녹 취 문>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유수동 전)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면담자	조연희	면담지원자	송미정
면담일시	2025. 08. 20.	면담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동아리실
녹취문 작성자	조연희	회차	1회차

1. 시작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05~00:00:39)

안녕하세요. 유수동 선생님.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 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유수동 선생님입니다. 일시는 2025년 8월 20일 수요일이고, 장소는 미추홀학산문화원 동아리실입니다. 면담 진행은 조연희가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근황 및 개인 신상 (00:00:40~00:03:40)

면담자: 먼저 최근 근황 여쭤보면서 면담 시작할게요. 현재 서각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구술자: 현직에서 퇴임하고 시간이 많이 나길래 남구 목공센터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서각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동아리를 결성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여기 학산문화원에서 공간도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하다 보니까 여기서 매주 정기 모임을 하면서 인연이 됐습니다.

면담자: 제2의 즐거움을 찾으셨네요.

구술자: 시간 보내는 데 좋아요.

면담자: 구술 기록을 위해서 유수동 선생님의 정확한 생년과 출생지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저는 56년생이고요. 인천에서 태어나서 미추홀구에 오랫동안

면담자: 그럼 태어나신 곳도 미추홀구 이신가요?

구술자: 태어난 거는 아마 중구라는데, 2살 때 지금 사는 집에 왔다니까 평생 산 거나 마찬가지야. 한 집에서 평생 산 거예요. 이사 한 번 못해보고 한 집에서 70년 되는 거죠. 계속 거기

살았죠.

면담자: 그래도 뭔가 진짜 고향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것같아요.
구술자: 그럼요. 수봉산 밑인데, 고향이죠. 뭐 평생 살았으니까

면담자: 그래서 이번 구술 채록자로 저희가 섭외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구술 기록 참여해 달라고 섭외 받으셨을 때 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구술자: 지난번에 그 말씀 듣고 난 상의에 평생 몸담았으니까 그 관련이라면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후배가 추천을 했다던데, 기업 관련이면 내가 그래도 조금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죠.

면담자: 소개해 주신 후배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구술자: 이창훈 부장이래요. 근데 그 친구 참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면담자: 워낙 또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구술자: 오래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3. 인천상공회의소에 입사하다 (00:03:41~00:11:16)

면담자: 저희 이제 본 인터뷰 들어갈게요. 이제 인천상공회의소에 오래 계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입사하셨고, 입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구술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가 경제 단체인데 이제 어느분이 추천을 해서 83년도에 입사. 우리는 입소라고 그래요. 83년도에 들어갔죠. 83년도. 그래서 40년 근무를 했죠. 거기서.

면담자: 그러면은 인천의 경제 발전 그 전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구술자: 뭐 그랬다고 봐야죠. 이제 거기가 기업인 단체이고 어떤 경제 관련 산업 관련 모든 종합 경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몸 담아서 평생 일을 했다고 봐야죠.

면담자: 저희 사전 인터뷰 때 이렇게 1980년대 인천상공회의소의 위상이 지역 경제 사회에서 굉장히 높았다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내부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그때 근무 80년대 당시에 직원이 몇 명 정도 상주해 있었는지 좀 말씀부탁드려요.
구술자: 그게 처음에 이제 들어가니까 직원이 한 80명 가까이 됐어요. 8, 90명 가까이 되고 더 늘어나서 100명까진 안됐고 한 90까지 된 것 같아요.

면담자: 가장 많았을 때가

구술자: 응 그렇지 그때는 그 경제단체의 위상이 내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단체 사회단체 경제단체 무슨 이런 단체가 많지 않았어요. 특히 경제단체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 상공회의소는 이제 법정 단체라고 그러고 몇 군데 없었는데 우리가 종합 경제단체니까 또 이제 기업들하고 실물 경제를 우리가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상의에 위상이 높았죠. 그리고 일하는 범위도 넓고 그게 90년대 초반에 중국하고 수교할 때 그때까지는 아마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았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남동공단이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단을 조성하는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추진위를 구성해서 남동공단이 조성되기까지 그 역할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상도 높고 기업인들도 또 우리 상의랑 같이 협력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그 바람에 남동공단도 또 탄생이 됐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최대 산업공단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지.

면담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인천 상공회의소 어떻게 보면 가장 입사하고 싶은 회사였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위상이라고 하면 그럼 첫 월급 혹시 기억나세요?

구술자: 기억나죠? 83년도 3월인데 27만 원인가 26만 원인가 첫 월급일 거예요. 20 몇 만 원이야 하튼 26 7만 원 됐을 거예요.

면담자: 그럼 당시 물가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구술자: 뭐 하여튼 낮지는 않았어요. 상의 직원들은 이제 상의는 주로 인력으로 일하는 데니까 우리 무슨 공장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부 사무직 직원들 아니에요. 이게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급 인력이 들어와서 어떤 맨 파워가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크게 뭐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 못 받는다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면담자: 이 질문지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럼 첫 월급 받아서 처음에 뭘 사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냥 조금 궁금해서

구술자: 다 그냥 사회 나가서 이제 첫 직장에서 그런 보람도 있고 참 정말 의미도 있고 그럴 때죠. 그렇게 했겠죠.

면담자: 그러면 입사 당시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이라고 하셨는데 입사 당시에 처음 맡았던 업무가 있으시잖아요. 그게 대학에서 공부했던 거랑 좀 전공과 관련이 있으셨는지.

구술자: 크게 보면 그렇죠. 제가 이제 상대를 나왔으니까 이제 또 상의가 또 경제단체니까 관련도 있고 또 첫 업무가 제가 이제 조사과예요. 조사과 조사 업무를 내가 이제 처음에 맡았는

데 그거를 한 한 8~9년 했어요. 8~9년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조사라는 건 좀 답답하지만은 기초 데이터거든요. 기초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각종 기업들의 그런 생산, 출하, 고용, 가동률 또 그런 기업들의 흐름을 조사하는 그런 업무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물 경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의 현장에 대한 그런 이해 또 이런 이제 그런 기업들의 활동 그런 경영 이런 거를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답답한 업무인데 이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조사 업무는 좀 답답한 거죠. 통계 같은 거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베이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업무를 이해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하는 데도 도움도 됐고 그래서 조사업무를 내가 처음에 들어가서 하게돤 거죠.

면담자: 지금 업무가 조금 답답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구술자: 이제 젊은 놈이 이제 회사 들어갔으니까 좀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조사나 이런 업무들은 좀 죽치고 앉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내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보고서 내고 그런 거 주로 했거든. 근데 굉장히 내가 평생 상의 일하면서 그게 그 하여튼 밑바탕이 됐다. 그래서 어쨌든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면담자: 상대 졸업하셨다고 하셨는데 전공은 어떤

구술자: 국제통상이에요.

면담자: 국제 통상. 처음 알았어요. 지금.

4. 중국과의 수교 및 인천의 발전 (00:11:17~00:18:06)

면담자: 이제 인천상공회의소가 올해 설립 140년을 맞았다고

구술자: 1885년

면담자: 네

구술자: 맞아요. 85년. 굉장히 오래됐어요.

면담자: 오랜 역사만큼이나 이 기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92년 중국과 수교 이후에 조금 변화도 생겼다고 하셨는데 크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러니까 이게 개항이 83년에 됐으니까 이제 2년 후에 아마 이제 상공회의소의 효시가 이제 인천 객주회라고 그러는데 예 뭐 하여튼 상인이라는 거는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존재했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결성을 했다는 건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객주라고 이제 아마 여기 인천항에 있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결성한 게 이제 효시예요.
그게 이제 상의의 효시인데,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공회의소라는 걸 쓴 거는 아마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그런 조직적인 구성을 한 거니까. 그 이전에 이제 뭐 일제시대 때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영세하고 그랬겠지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 수립 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아까 92년 얘기한 거는 이제 상의가 그 이후에 이제 발전돼 가면서 하나의 계기가 된 게 이제 인천이 큰 변화가 된 게 중국과 수교니까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단계를 거쳐서 이제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전국에서는 아마 최초일 것 같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마 더 먼저인지 그건 그런데 인천이 거의 뭐 140년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거고 지금은 세계적인 조직이니까 이 상공회의소가 세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종합단체로서 뭐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단체다.

면담자: 그때 저희 사전 면담 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원래 이제 단체가 많지 않아서 이제 상공회의소가 했던 업무를 이제 여러 단체들이 생기면서 이제 좀 분담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술자: 글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입사 당시에는 경제단체가 우리 상의가 유일했는데 말씀대로 92년도인가 중국하고 수교하고 나니까 이제 관심이 많아진 거야. 인천에 그전에는 이제 뭐 인천이 그렇게 주목받을 일이 지금은 대단한 거야. 인천이 과거에는 그냥 기업이 많은 거야. 기업이 그냥 이런 현장 원목 업체들 고철 들여와 가지고 이렇게 가공하고 이런 현장 중심의 이제 기업이 많았었는데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그런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단체들 이제 코트라다 무역협회다 또 금융이다 건설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 산업에 그런 데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런 중국하고 이런 큰 비즈니스를 앞두고 다 어느 분야든지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영역을 확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큰 단체들이 인천은 이제 서울의 수도권이라고 그래서 같이 취급을 해버렸다고, 별도 브렌치를 놓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현장 사무실이라든가 브랜치(Branch)를 놓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상의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렇게 그런 활동을 조금 분산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단체들이 느니까 서로 자기분야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전문성이 늘어나게 됐다고 봐야죠

면담자: 좀 더 세분화

구술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뭐 목공이지만은 이제 일반 목공도 있고 서각도 있고 조각도 있고 뭐 또 이런 저 원 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소품도 많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경제 단체인데도 다 각자 전문성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들 들어왔죠. 그때가 계기가 된 거야. 92년도가 그래서 하여튼 또 그게 사실이고 중국하고 지금도 제일 큰 교역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보니까 이제 단체들이 많이 늘어났고 사람들이 기업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인천이 발전된

면담자: 계기가 된 거네요. 진짜

구술자: 중국 수요가 크지 그 엄청나잖아. 그 수요가. 그럼 지금도 항상 경제는 중국하고 해야 되고. 안보는 뭐 어쩌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때가 현실화 된 거야. 92년도 그동안은 대만하고 우리가 친했어요. 그동안 대만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 우리는 수교를 대만하고 했으니까. 근데 중국하고 안 하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이제 하나의 경제를 일으키려면은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어 그래서 그 대만하고 단교했잖아. 단교하고 중국하고 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 조건이 대만하고 관계를 끊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화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만 화교들이 그때 반대하고 뭐하고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친구를 내치고 여기 하고 하니까 그랬댔어. 굉장히 아픔이 있었지. 우리는 대만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하고 그거를 안 하고서는 안 되니까 정세가

면담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런 경제에도 전환점을 맞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구술자: 중국이라는 경제 수요는 어마어마한 거니까 세계적인 거니까

5. 80대를 견인했던 대표 사업 (00:18:07~00:27:53)

면담자: 인천상공회의소가 지금도 인천 상공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그러면 인천상공회의소의 중점 사업이나 정책이 시대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재임하셨던 기간, 특히 80년대에서 90년대에 기억나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술자: 80년대는 전두환 시절인데, 기업들이 불법으로 산재해 있는 게 있었어요. 무허가 난립이라고 그러지. 수도권에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이 이 동네 저 동네 구석구석에. 그런 게 굉

장히 기업하기가 어렵고 사는 사람들도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공단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고 공단. 근데 수도권에는 공단을 할 수가 없어. 대학도 못 짓고 병원도 못 지어. 이 수도권 규제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상공인들의 염원이어서, 꼭 좀 공단을 만들어야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전두환 대통령이 인천에 왔을때 기업인들이 건의를 했죠.
공단을 만들려면 현행법에서는 안 되니까 특별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야 남동공단을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기업인들의 건의를 수용해야 되겠다 해서, 남동공단 500만 평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 과정에서 상의가 중심이 돼 가지고 기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남동공단을 만들게 된 거예요. 남동 염전을 매립해가지고. 거기 기업이 한 지금 한 7~8천 개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면담자: 그 전 과정을 다 지켜보셨겠네요.
구술자: 난 그때 상의에서 신입 직원이지만, 선배들이 하는 일 뒷받침도 하고 그런게 생각이 나요. 그다음에 90년대, 중국과의 수요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을 했다고. 중국에 많이 갔어요.
왜 그러냐하면 인건비도 싸고 부지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업무 지원을 하고 그랬죠. 아마 그때 당시에 경제특별구역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고 공항이 만들어졌어. 공항이 먼저 만들어졌어. 인천공항

면담자: 인천공항이 그때.
구술자: 그때 만들어졌을 거야. 공항이 생실 때 당시에 일산 어디 어디 이야기하다가, 인천으로 최종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 수교 그 다음에 큰 게 인천공항이야. 그리고 을왕리 용유도 하고 그 섬을.

면담자: 4개 섬
구술자: 영종도하고 용유도 하고를 매립했잖아. 그 사이를

면담자: 맞아요.
구술자: 그래서 거기다 공항을 만들었잖아. 그게 또 하나의 엄청난 인천 발전의 계기예요. 공항을 만드니까 인천하고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섬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경제특구라는 게 있어. 경제특별구역. 여기 송도 1,600만 평, 청라 500만 평 영종은 4천만 평이야. 그래서 6천만 평이야. 그 세 군데를 특별 구역으로 해서, 특별 구역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규제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얼마든지 여길 와서 투자를 해고 활동을 하게끔 아무런 제

약을 없애주는 거야.

노동에 대한 제약, 세제, 환경.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거야. 경제 자유무역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경제 자유무역이야. 마음대로 활동해라. 그런 걸 정부에서 지정을 했단 말이야. 다른 지방에도 있긴한데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은 여기 인천이야. 그 세 군데 6천만 평.

면담자: 그럼 그렇게 지정이 됐을 때 인천에 있는 국내 기업들은 영향은 없었나요?

구술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건데, 반드시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지 돼. 우리나라만 할 수는 없는 거야. 포인트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라는 게 본 뜻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기업도 많이 들어갈 수 있었죠. 얼마나 인기가 좋아. 지금도 송도 청라 거기가 특히, 송도 같은 데 지정하고 그러면은 공항하고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게 영종대교. 그건 공항 만들면서 된 거고. 그 다음에 인천대교, 송도랑 연결하는 거야. 요번에 또 청라하고도 연결하잖아. 그래서 공항이 생기면서 인천이 뒤집어진 거야. 그 다음에 특별 자유구역 만들면서 미국에 투자 유치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오고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이제 파트너 기업이 됐다죠. 포스코가 많잖아. 그러면서 엄청난 개발이 일어나서 인천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면담자: 그때 인천 상공회의소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외국 기업들도 오고 하니까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 대단했죠. 그때 경제구역이 생기고, 경제구역과 공항하고의 연계. 이렇게 하면서 인천에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또 인천이 이제 홍콩, 싱가포르 그 다음에 상해. 이런 세계적인 동북아 거점 도시들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 게 생기면서,

왜? 다 갖춰졌으니까! 항만, 공항, 물류. 그동안 동북아에서는 상해, 싱가포르, 홍콩. 여기가 허브 지역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인천에서도 한번 해보자 이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야. 최기선 시장이기초를 닦았고, 그 다음에 안상수 시장도 그런 비즈니스를 활발히 했어요.

그 다음에 송영길 시장, 또 지금 유정복 시장. 이렇게 해서 인천이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어마어마했어요. 과거의 인천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동북아의 허브 도시다. 허브라는건 거미줄처럼 엮어 있는 가운데거든. 인천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 허브 도시가 될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

6. 동양화학 이회림 회장 이야기 (00:27:52~00:38:07)

면담자: 변화의 바람에 체감을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인천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동양화학을 꼽을 수 있잖아요. 이회림 회장님이 81년에서 85년까지 인천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셨지요?)

구술자: 제가 들어갔을 때 회장.

면담자: 네. 역임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술자분 중 한 분께서 동양화학이 한창 성장할 때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이 남구 재정이 약 20%에 달할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천 상공회의소 성장에도 나름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떠했나요?

구술자: 그렇죠. 그 당시 동양화학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에요. 보통 대기업의 회장, 총수가 지방 활동을 잘 안 했어요. 중앙에서 하지. 근데지방 상의를 맡아서 봉사했다는 게 우선 감사한 일이죠. 그때가 남동공단, 그때야.

그러니까 그분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공단 조성에 애쓰시고, 또 상의의 대표로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분이 또 소탈하셨어요. 직원들 대하는 거나, 일하고 하시는 게 소탈하시고.

동양화학 연수원이 포천에 창수연수원이라고 있어요.

면담자: 창수 물 수자 창수

구술자: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다 나올 거예요.

면담자: 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구술자: 포천에 거기 지명이 창수야. 거기를 우리 직원들이 연수 겸 해서 갔는데, 그때도 직접 나오셔가지고 소탈하게 거리감 없이 해 주시는 거 보고. 여러모로 볼 때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느꼈었죠.

면담자: 남동공단의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구술자: 기본적으로 기업인의 눈으로 그걸 보셨지 않았나 해요. 당시 있던 자금으로 불로동 농장 쪽에 땅을 사셨다고 그래요.

면담자: 불로동

구술자: 서구의 불로동인데. 부지를 80년도에 샀는데, 서인천이 개발이 되면서 그 땅을 수용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90년도, 한 10년 정도 있다가 그걸 팔게 됐는데 그 돈이 기억에 100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가 남동회관을 짓게 된 거지. 우리 상의의 회관 건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다. 그래서 난 지금도 '이회림 회장이 먹여 살렸으니까 가서 엎드려 절해라. 항상 감사드려라.' 그렇게 농담들 하고 그래요. 그런 큰 결정으로 상의의 재정토대가 마련됐다 생각해요. 그런 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

면담자: 이야기를 들으면 이회림 회장님께서 철학적으로나, 운영 원칙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

요.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회장님의 모습은 어떠셨는지, 또 기억에 남는 철학이 있다면?

구술자: 인물도 좋으셨고, 항상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월급 타면은 쌀 한가마니 사서 윗목에 다 두라.' 가족들 밥 굶기지 말라는 얘기지, 먹는 게 중요할 때니까, 쌀 부터 한 두어 가마니 갖다가 윗목에다 두고 그러면 든든하니까. 그런 말씀 하셨어. 그러니까 절약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 뜻 같아요. 그런 거 실천하셨고, 또 건강 관리 잘하셨던 것 같아요. 눈 오는 날 맨발로 눈 밟는 거. 신문에 크게 난 적도 있는데 건강의 비결이 그거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눈을 맨발로 밟고 하면서.

면담자: 그때 당시부터 맨발 걷기를

구술자: 미술에도 또 조예가 깊어서 송암미술관 얘기 지난번에

면담자: 네. 맞아요.

구술자: 이렇게 미술관 건립해서 인천시에 기부하고, 생각이 참. 옛날 분인데도 다방면으로 식견이 뛰어난 거 아니냐.

면담자: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구술자: 물론이겠죠. 그 당시만 해도 동양화학 있는 데가 인천에서는 아주 변방이야.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변방이라, 사람들이 가는 데도 아니고 그런 자리인데 거기가 동양화학 공장이니까, 인천에 대한 관심이 많았겠죠. 또 그분이 마지막 남은 개성상인이야. 태평양화학, 신도리코, 동양화학 이렇게 크게 성공한 세 회사를 (일구신 분이야.) 그 정도 사업을 일구신 분이면 삶의 철학이나 경영 철학, 또 이렇게 미래를 보는 눈이 대단하셨겠죠. 이회림 회장 훌륭하신 분이야.

면담자: 회장님의 소탈함은 지난번에 인천상공회의소 직원분들 재임하시던 시절, 직원들과 같이 곰탕집, 칼국숫집 자주 가셨다고 하셨던 거에서 많이 느꼈는데요. 그 당시에 회장님이라고 하면 어깨 이렇게 펴시고 그런 이미지인데, 이렇게 직원들하고 소탈하게 같이 어울리신다는 게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리더십이나 운영 철학이 오늘날 기업 경영에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술자: 말씀대로 기업의 회장, 총수들을 감히 범접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냥 평사원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녁 모임이나 이런 데 평사원까지 다 불렀던 것 같아. 보통 간부들이나 불러서 수고한다고 그러면 그만이지, 그것도 어려운 건데. 평사원까지 하나.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거, 그게 참 감동이잖아요. 나는 평사원인데. 이래서 서로 믿음이 가는 거고, 회장님이 이렇게 우리까지도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사람은 자

기를 믿어준 사람한테 충성을 하게 돼 있거든. 그게 경영에서의 그분의 큰 능력이지.

면담자: 요즘 '가족 같은 회사' 이런 말을 하는데, 가장 본보기가 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

구술자: 한 70~80명이니까 조그마한 조직이고, 회사는 수천 수백 수천이니까. 격의 없는,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 그 당시 회장으로 계실 때 직원들도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겠지.

7. 아버지 뒤를 이은 이수영 회장 이야기 (00:38:08~00:52:03)

면담자: 이회림 회장님의 뒤를 이어서 아드님이신 이수영 회장님께서도 인천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역임하셨잖아요. 산업화 1세대와 2세대인 부자가 모두 회장직을 맡는 사례는 사실 드물다 보니, 이 지역 경제는 물론 인천 상공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또 컸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렇죠. 이회림 회장이 85년도에 퇴임하시고. 그때 동양화학이 제철화학을 인수해 가지고 동양제철화학이 됐어. 동양제철화학. 하나의 큰 기업, 화학회사를 인수했죠. 그래서 더 커졌는데, 그러면 아들 회장도 더 위상이 높아졌을 거잖아요. 아버지야 뭐 인천에 대한 애착이 있으시고 본인이 창업주니까 그랬지만. 아들 회장은 인천에서 활동하신 분은 아니거든. 서울에서 활동하시고. 그 계기를 얘기를 하자면 또 긴데, 그런 아들 회장한테 인천 가서 좀 봉사를 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아마 설득을 했겠죠. 그 아버지 설득을 받아들여서 2000년도에 아들 회장이 와서 또 상의회장을 맡게 돼. 부자 회장을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지역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고마웠죠. 뭐.

상공회의소나 경총이나 회사다 했을 때, 단체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위상이 달라져요. 전경련 회장이 정주영이다 이병철이다 그거 하고, 지금의 뭐 누구다 이런 거 하고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조직의 위상을 높이려면은 단체 회장을 누구를 모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면담자: 영향력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하시겠네요.

구술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수영 회장 전에는 지역 기업들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동양제철화학 회장이 왔잖아. 인천에서는 큰 기업이고 그러니까 기대가 또 있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체의 위상도 (높아지지). 학산문화원 원장도 마찬가지야. 누구 그럴듯한 사람이 와서 맡으면 위상이 달라져, 대표가 누구냐는 거에 따라.

면담자: 이해가 확 되네요.

구술자: 그렇지. 그러니까 이수영 회장이 온 걸 환영을 했지. 다시 또 큰 기업 회장이 우리 상의를 또 맡아줘서 기대도 크고 또 고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봉사니까 안 하려고 그래. 친목회 회장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

면담자: 책임을 져야 되니

구술자: 시간 내야지, 회장 노릇을 하려면 재정 같은 것도. 하여튼 골치가 아.파 그냥 안 해. (기업 규모가) 적으나 크나 똑같아. 그분들도 기업 경영하는 바쁜 사람들이, 그거 맡아서 가서 의례적인 거를 하려니까. 사람이 어디 가서 좀 노릇하려면 좀 힘들잖아. 그런데도 이수영 회장이 와서 맡아준다니까 우리로서는 고맙고, 기대도 있고 잘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죠.

2000년도, 밀레니엄이 돼서 왔으니까 이제 경제 자유구역. 인천이 하나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인천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의로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과제가 있잖아요.

제일 큰 거는 인천에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돼,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도 자본이지만 외국 자본이 여기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우리가 유치해서 남의 돈 갖고 장사를 해야 좋은 거니까.

들어오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들도 뭐가 있어야지, 좋은 혜택이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인천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을것이냐. 이런 게 과제였었다고.

면담자: 그때가 이수영 회장님이 인천 상공에서 회장직을 하셨던 거죠.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이수영 회장님이 인천 상공에서 회장직을 역임하셨을 때가 딱 2000년대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시기였더라고요. 그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기대에 차 있었고 하다 보니 인천 상공에서 회장직을 연임하면서도 중점을 두셨던 사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때 그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좀 중점을 두셨었는지

구술자: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홍보를, 홍보.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은. 송도다 그러면은 한동안 많이 지적받았던 게, 송도 가면 아파트만 잔뜩 있지 뭐가 있냐 이런 지적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편중되게 개발이 되면 안 돼. 연수동에 지금 뭐 있는지 몰라. PC방하고 호프집밖에 없어. 연수동에 진짜로 뭐가 있어? 연수동에 한동안 그렇게 놀림을 받았다니까. '야 송도도 그거 뭐 말은 뻔드르르한데 뭐가 들어오냐.' 그런 게 바로 이제 정주 여건이야. 정주 여건은 모든 게 다 어우러져야 된다는 얘기지. 병원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도.

면담자: 생활 여건이 좀 갖춰져야

구술자: 필수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기 위해 투자해서 여기에 사람들, 외국인들이 왔을 때 과연 여기 송도 와서 살 만한 데다 그런 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어디나 다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그냥 베드타운이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잘못하면 자꾸 아파트만 짓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송도 이거 말은 뻔드르르한데 뭐 저거 뭐 되겠냐.' 인천 바닥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그 다음에 청라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여기 영종, 영종이 제일 크죠. 그런 기반 SOC가 골고루 갖춰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상의가 했는데, 단위 사업은 지금 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보면 많이 나올 것도 같고. 그다음에 국제화예요. 국제화 인천을, 서울은 사람들이 알아도, 인천은 과거에 비하면 조금 안다고 할까. 이제 공항도 만들고 그랬으니

면담자: 국제화를 많이 내세우면서 하고 있죠. 지금 홍보를

구술자: 카시라고, 아시아 태평양 상공회의소. 그전에 대만 사람이 회장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수영 회장이 맡았어요. 카시. 카시라는 게 이제 기구 이름인데. 그래서 아태 지역에 인천의 위상을 알리고. 좀 국제화를 많이 했지.

면담자: 이게 혹시 몇 년도인지.

구술자: 그게 2003년도인가 그래.

면담자: 그러면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하시면서 그것까지 하신 거예요.

구술자: 카시 회장을 했어. 카시 CACCI. 여기도 나올 거야. 그때 내가 경제부장으로 수행해서 나가서

면담자: 그때 그러면 선생님은 경제부장직이셨군요.

구술자: 당시 대한상의 회장이 중국 경제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맡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대만이 거기 본부, 대만하고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이수영 회장이 당시에 대한상의 회장은 박용성이야. 두산그룹 회장 박용성이라고 있어. 그래서 분담을 했지. 박용성 회장은 중국 경제협의회 회장, 이수영 회장은 카시 아태 상의회장. 이렇게 해서 맡아서 국제화를 서로가 좀 해보자.

면담자: 그 얘기만 들어도 그때 당시 동양제철회학의 위상이 대기업. 지금 말하는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짜 큰 기업이었네요.

구술자: 그랬지.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경총회장이 공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수영 회장에게 제안을 한 거야. 중앙에 와서 경총 회장을 당신이 좀 맡아달라. 여기(인천 상공회의소 회장)는 임기를 연임해서 1년밖에 안 지날 때거든. 그때 경총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한번 3년 하고 1년 만에 그걸로 가신 거야.

면담자: 경총회장으로

구술자: 2004년도에, 그러니까 4년 계셨지.

면담자: 전국 경총회장 역임하시면서, 인천 상공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제 한국 경영계의 수장이 되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인천 출신 기업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다고 보시나요?

구술자: 그것보다는, 큰 역할을 제안을 받으셨는데 그거를 차마 거절을 못하셨겠죠. 그렇게 좀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 아마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어디 핑계 대고 어디도 가시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요청을

면담자: 받아들이셨군요.

구술자: 경제 4단체가 상의, 전경련, 그다음에 경총,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앙회. 4개가 그거예요. 경제 사회 단체라고 그래. 근데 기업인들이 경총회장을 안 맡으려고 그래. 왜 그러냐 하면 노조하고 경영자하고의 창구가 경총이야. 그러니까 경총은 노조하고 어쩌고 뭐 이걸 해야 되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잖아. 그러니까 경총회장으로 잘 나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 사람이 없고, 그런 마당에 제안이 들어온 거지. 하여튼 불가피하게. 대신 우리는 공석이 된 거지. 또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부자 상의회장 시대가 2004년도에 끝난 거지.

8. 제조업 기반의 변화 (00:52:04~00:55:36)

면담자: 인천뿐만이 아니고 이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는데, 제조업 기반의 기업이 부동산 개발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술자: 여기도 그랬죠. 동양제철도 OCI로 바뀌고.

면담자: 맞아죠.

구술자: OCI로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 땅이 50만 평인데, 남의 회사 얘기를 내가 하게 되네. 이거는 조금 그런데.

면담자: 곁에서 가까이서 지켜보셨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

구술자: 군산 공장을 추가로 크게 짓고, 그러면서 인천 공장에서의 역할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실리콘 공장이 군산으로 갔으니까. 여기는 이제 조그맣게 염화칼슘이나 그런 거 조금 했는데. 그러니까 50만 평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기업에서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DCRE가 나타난 거죠. 개발 회사. 동양 OCI는 원래가 화학으로 출발해서 화학으로 발전해 온 회사인데, 공장 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DCRE를 해서, 기업의 방향을 개발 쪽으로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 세제 문제가 나와서 하나의 큰 위기를 맞고, 다행히 소송까지 갔다가 1, 2심 통해서 이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시작된 거지. 그리고 시내에 있는, 옛날에는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도심 한복판이 되는. 어떤 회사나 그래. 옛날에는 다 외곽에 있지만은 도시가 발전해 가면서 그 부지 위치가 도심권 안에 들어와. 그런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거의 개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수익도 높고.

예를 들자면 뭐 여기 한두 군데가 아니야. 서울은 더 많고, 공장은 이제 더 변방으로 가고 기존의 공장들은 도심이 됐으니까.

9. 동양화학의 지역 상생을 위한 노력 (00:55:37~01:03:02)

면담자: 맞아요. 처음에 공장을 지을 때 당시에는 외곽에 있었다가, 그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중심지로 들어와 버리니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또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동양화학은 인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굉장히 큰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기부 체납이라든가.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식을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선생님 재임 기간에 발생한 제도적, 사회적 장벽에 또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술자: 몇 번이죠?

면담자: 17번입니다.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술자: 제도적 사회적 장벽? 이게 뭐지. 기부 체납하고 지역주의 상생을 하는데

면담자: 동양제철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제도적으로나 이제 사회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로 인한 한계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술자: 뭐가 막혔다

면담지원자: 협의를 보기 시작 했는데, 우리가 모든 일에는 협의를 하잖아요. 그럼 주민들과 협의하거나 아니면 상인들과 협의하거나. 그리고상공에서는 중간 역할로 협의를 하잖아요. 근데 협의를 보면서 해결 안되는, 높은 장벽을 어떻게 넘으셨는지.

구술자: 우리가(상공회의소) 역할을 한 건 아니고

면담지원자: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됐거나.
구술자: 내가 볼 때 제일 큰 사안은 공장 부지 활용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OCI가 제일 크게 당면한 거는 환경 문제야. 환경 문제. 왜냐하면 화학제품에서 발생하는 폐석회가 있어. 폐석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 폐석회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외국에서는 그것도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반 닦는데 도로 같은 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흙으로 섞어서 버려야 된다니까. 이 폐석회 문제가 큰 문제야. 이 주변에 그냥 허예.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은. 거기 냉각수도 있는데, 폐석회를 물에다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또 처리하고. 그러면서 평생 시달렸던 게 환경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를 환경 단체, 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마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을 거야. 환경에 대한 책임지라고. 하여튼 참 이게 기업들 힘들어. 그래서 그거를 무마해야 되고, 또 자기들도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부 체납, 이런 주민과의 상생 문제 그런 거를 열심히 했어요. 자기 기업으로 하여금 지역이나 이런 주변에 그런 불이익이 안 가게끔. 그래서 아마 그 기준에 넘으면 넘었지 절대 부족하지 않았다고. 근데 개발이 나왔잖아. 이제 개발하려고 나왔는데 그 부지 50만 평의 부지, 그 자체에 대한 오염 이런 거를 너무 심하게 물고 늘어졌어. 개발을 해서 빨리빨리 로드맵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그냥 물고 늘어지니까. 행정당국도 그거를 그냥 하라고는 안 그러니까. 기업이 환경단체의 말을 수용을 하라고 그러는 식이니까. 그래서 아마 개발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면담자: 정화시키고 뭐 해야.
구술자: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그런 고충이 많았어.

면담자: 그 곁에서 바라보면서도 되게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구술자: 지금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엊그저께도 노란 봉투법이다 중대 재해법이다, 이런 게 기업은 사생 결단이 나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법이 통과되잖아. 똑같은 거야. 기업한테 너무 프레스를 하면은 기업이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느냐. 힘들거든. 기업은 또 기업대로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기부 체납은 지금 개발하면서도 뮤지엄파크. 여기 뮤지엄파크가 몇 만 평이야. 1만 몇천평이던가. 기부 체납을 다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고 볼수 있죠. 조금 개발한다고 그러면, 기업은 기업대로 하는데 하여튼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볼 때

면담지원자: 외국에서는 그 폐석회를 부산석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시멘트 성분이어 가지고

구술자: 그렇죠. 그런 얘길 듣고 했는데. 도로 밑에다 그걸 깐다니까. 나도 그렇게

면담지원자: 그거를 다 활용을 한다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만 그게 폐기물 처리가 돼서 돈을 내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구원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폐석회가 인체에는 그렇게 많이 해롭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화돼 가지고 그냥 굳어진다고

구술자: 맞아 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냐, 그런 것 같아요

면담지원자: 이게 너무 이상한 데 꽂히는 것 같아요. 환경이 너무 이상하게 꽂혀가지고

10. 동양화학이 인천 지역 경제와 산업계에 가지는 의미 (01:03:03~01:06:33)

면담자: 이제 두 개 정도 질문이 남았는데,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오랜 시간 몸 담으셨는데, 타 지역으로 이전해서 이제 역사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동양화학 인천공장이, 지역 경제 또는 산업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술자: 뿌리를 남겼죠. 불모지 인천에서 화학 공장으로 자리해서, 지역에 고용이라든가 산업 발전에 리더로서 그런 역할을 했다.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인천이 제조업 중심이거든요.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 제조업 중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 지금은 군산이 메인으로 돼 있고 여기는 천상 다 떠나게 되고, 이제 개발 아파트만 남게 될 것 같은데. 세상 변화에 따라서 업종도 변경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건데, 인천 경제 산업 발전에 동양 OCI는 정말로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또 기업 대표 회장들이 우리 상의 회장을 맡아서 봉사까지 부자에 걸쳐서 해 주신 거 이런 것도 인천 산업계에는 잊을 수 없는 큰 공헌을 남긴 거죠.

또 기업도 화학 공장이면 이미지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직원들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다 좋다고 그러지, 평가를 나쁘게 하는 데가 없어 참. OCI 참 좋은 회사였다. 화학 회사니까 누가 이렇게 눈여겨볼 거는 없잖아요. 무슨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설탕 회사도 아니고 옷 회사도 아니니까.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화학 공장이니까 그렇잖아. 그래도 기업 이미지나 지역에서의 이미지를 잘 쌓아왔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이 개발에서도 잘 되길 바라는 거지. 지금으로써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1. 마무리 소감 (01:06:34~01:20:26)

면담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또 인천의 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 동양 제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오늘 참여해 주신 구술 기록이 어떻게 활용되기를 바라시는지. 네.

구술자: 나는 사실은 의도나 이런 거 잘 몰라. 지금 사실은. 그때 그냥 어떻게 하더니 오늘 또 이렇게까지 하는데, 인천에 기업들은 많지. GM이라든가, 두산 인프라, 경인에너지. 어마어마한 회사들 많아요. 규모는 더 크지. 내가 지금 정확한 목적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아는 바대로.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지. 어떻게 나오길 바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면담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전해지기를 바라신다든가, 그런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술자: 그래 맞아. 여기 동양화학 OCI 거기서부터 저기 지금 법원 있는 데까지, 거기가 굉장한 공장지대였었어요. 거기 동양화학 앞에 대우전자, 그 옆에 부국사료 지금도 있지.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한농, 한국농약이야. 저쪽으로 가서 동일방직, 한일방직, 한국강관, 이런 꽤 큰 회사들이 있었어. 거기에 난 지금 눈에 선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공장들이 외곽이었단 말이야. 인하대 앞에 다 공장이야. 큰 공장들이야.

한국강관 이런 거 규모가 꽤 있었어요. 지금 풍림 이런 데가 다 그 자리야. 도심화되면서 (공장들은) 다 떠나고 개발적인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요. 식당이 하나 있어도 주거지만 있으면은 식당이 안 돼. 반드시 기업이 있어야 돼. 기업이 같이 혼재해야 돼. 물론 도심에 기업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베드타운이 되는 거예요. 기업은 그런 큰 수요가 있죠? 주거지는 어림도 없어. 지금도 어디 어디 회사 들어가려면 돈 있는 회사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부자 회사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좋은 회사 가려고 그러고. 좋은 회사가 돈 많은 회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진게 있어야 인심이 나와 거기서, 광에서 인심이 나는 거야.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돈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건 돈이 있다고 봐야지. 많거나 적거나 차이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도심에서는 서비스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업종이 다양하지만은, IT 기업들도 많잖아요. 항상 기업하고 혼재해 있어야 된다. 기업과 같이 발전을 해야지, 주거만 있고 무슨 소비만 있으면은 결국엔 그건 한계가 있거든. 생산적인 게 있어야 돼. 정주 요건이 돼야 된다. 생산적인 기능을 하는 데가 있어야 돼. 이게 기업이거든. 관공서가 생산적인 게 뭐 있어. 근데 그런 데도 필요하겠죠. 근데 제일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업이야. 거기서 뭔가 파생이 되고 생산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나올 데가 없어요. 기업 빼놓으면은.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래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있을 때나 지금이나, 기업은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로 봐. 주변에서 말야.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질 않아. 기업인을 좋게 보질 않아. 그런 시각이 있어. 어떻게든지 규제를 해야.
기업인 중에서도 물론 그런 경우(사회에 부정적인)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위한 정책,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가 필요해요). 내가 볼 때는 기업인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기업은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구멍가게를 하든 큰 기업을 하든 자기 다 걸고 하는 거거든.

면담자: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많은 이바지를 하잖아요.
구술자: 나라면 그래. 고용, 세금, 상생. 있는 데서 인심 난다니까 없는 사람은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그렇지를 않아. 하여튼 그게 참 아쉬워.

면담자: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좀 인식이 좀 많이 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편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구술자: 기업이 잘 돼야 같이 성장하면서 그런 기회도 만들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면담자: 적어도 동양화학이 미추홀구에 있음으로써 미추홀구가 어떤 변화 발전을 했고, 이런 것만이라도 알릴 수 있다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구술자: 역할을 했죠.

면담자: 네
구술자: 웬만한 용현동 사람들이나 다 이제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근데 그 기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업이 규모에 관계없이 정말 생존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볼 때 맨날 그 회사 그 회사지, 맨날 그 회사가 그 회사 같은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생존 게임을 하고 있다. 죽기 아니면 살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무서운 거지.
이게 오리가 물에 떠 있으려면 밑에서 한다고 그러듯이, 그렇게 외발 자전거 탄 거야. 안 나가면 쓰러져. 그렇게 돼 있어. 사람 일생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멍하니 있어 갖고 안 되듯이, 기업은 맨날 간판은 걸려 있는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생존 게임이다. 근데 도와주질 않는다. 이렇게 제도를 보면 너무 너무 압박을 하고.
반세기 동안 동양화학 같은 기업들의 미추홀구에서의 역할은 정말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구술 인터뷰의 목적) 미추홀구의 동양화학의 위상, 잘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닌가 생각해요.

면담지원자: 포천에 창수 연수원에 이회림 회장님도 같이 가서 연수하실 때, 혹시 재미난 에피소가 있었을까요?

구술자: 재미나기보다는. 이 회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옷을 입으셨는데, 남방 샤스(셔츠)에다가 이렇게 자켓을 입었는데, 남방 샤스를 보통 바지 속에다가 넣거든. 근데 그냥 겉으로 나왔어. 너무 큰 거야. 옷이 맵시라는 게 있잖아. 또 회장이고. 근대 그냥 이걸 늘어뜨리고 거기다 자켓을 입은 거야.

면담자: 굉장히 소탈하시구나.

구술자: 그냥 그게 편하거든. 남자들은 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편해. 넣는 건 벌써 빽빽하고. 회장으로는 그때 아우라가 있어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어려웠을 때야. 옛날에는 그 부장만 돼도 쳐다보기 힘들어. 옛날 분들은 그렇게 이제 그런 하나의 그런 위상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렇게 소탈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느꼈고.

그때가. 술 먹는 사회야. 술 권하는 사회, 술밖에 없었어. 아마 먹고들 다 다 그냥 퍼졌지 않았나. 그랬고 뒷산을 이렇게 워킹을 했나. 넓으니까 거기가. 그래서 그걸 같이 또 이렇게 같이 해 주시고. 연수원에 본인이 애장품 같은 거를 두고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 그 양반이 예술적인 조예가 굉장히 높으셨어. 송암미술관에도 몇 만 점 될 거야. 그거 다 모아가지고 기업하는 중에도 그런 걸 모아서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고 그랬는데. 기업 경영하면서도 그런 활동을 하는게 참 훌륭하시다. 그런 느낌이 있고. 기업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면담자: 그래서인지 동양학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인터뷰하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회장님의 그런 경영 철학이. 긴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녹취문 내용을 세부 주제로 나눠 시간 기입
글씨체 : 함초롬바탕
글씨크기 : 세부주제-12pt(볼드체 적용) / 내용-10pt
줄간격 : 200%